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콩알 하나 없으니 주린 처자를 어이할꼬? 어쨌든 협사촌의 서대주가 도적들과 아래위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적하여 부유하다 하니 찾아가 얻어 보리라.’

하고 협사촌을 찾아간다. 허위허위 이 산 저 산 어정어정 걸어가며 생각하되,

‘이놈이 본디 큰 쥐로 도적질하는 놈이니 무엇이랴 부를꼬? 쥐라 해도 좋지 않고, 서대주라 해도 좋지 않으니, 이놈 부르기 어렵구나. 어쨌든 대접함이 으뜸이라.’

길을 재촉해 협사촌을 찾아 서대주 집 문 앞에서 장끼 큰기침 두 번 하고,

“서동지 계시오?”

하며 찾으니, 이윽고 시비 쥐 나오거늘 장끼 문왈,

“이 댁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댁이오?”

물으니 시비 답왈,

“어찌 찾으시오?”

장끼 가로되,

“잠깐 뵈오리다.”

이때 서대주 자녀의 재미 보며 아내와 함께 있더니, 시비 와서 왈,

“문전에 어떤 객이 왔으되 위풍이 현양(軒昂)*하고 빛갓 쓰고 옥관자 붙이고 여차여차 동지 님을 뵈러 왔다 하나이다.”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대희하여 외현으로 청하고, 정주(頂珠) 탕건 모자 쓰고 평복으로 나아가 장끼를 맞아 예하고 자리를 정하니, 장끼 하는 말이,

“댁이 서동지라 하시오? 나는 양지촌 사는 화충이라고도 하고, 세상에서 부르기를 장끼라고도 혹 꿩이라고도 하는데, 귀 댁을 찾아 금일 만나니 구면처럼 반갑소이다. 한 번도 뵈지 없으나 평안하시었소?”

서대주 맹랑하다, 탕건을 어루만지며 답왈,

“존객의 이름은 높이 들었더니 나를 먼저 찾아 누지에 와 주시니 황공 감사하오이다.”

장끼 답왈,

“서로 찾기에 선후가 있는 것 아니니 아무커나 반갑다 못하여 진저리 나노라.”

하거늘 서대주 웃으며 온갖 음식으로 대접하고 고금사를 문답하며 장끼를 조롱하며 벗하더니, 장끼 콧소리를 내며 말하기를,

“서동지께 청할 말이 있노라. 내 본시 넉넉지 못해 오늘까지 먹지 못하다가 처음 청하온데 양미 이천 석만 빌려주시면 내년 가을에 갚으리니 동지 님 생각에 어떠시오?”

서대주 웃으며 하는 말이,

“속담에 ‘우마(牛馬)도 초분식(草分食)하고, 산저(山豬)도 갈분식(葛分食)이라.’ 하였거든 우리 사이에 무엇이 어려우리오?”

(중략)

장끼 감사함을 칭사하고 양지촌으로 돌아가니라. 이때 서대주 노비 쥐를 명하여 창고를 열고 이천 석 콩을 배로 옮겨 양지촌으로 보내니라.

각설. 이때 동지촌에 딱부리란 새가 있으되 주먹뱃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현

양한 짐승이라. 양지촌 장끼를 찾아가 오래 못 본 인사 하고 하는 말이,

“자네는 어찌하여 양식이 저리 풍족하여 쌓아 두었는가?”

장끼가 협사촌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 빌린 사연을 자세히 말하니, 딱부리 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 마음이 녹녹지 아니하거늘 미천한 도적놈을 무엇이랴 찾았는가?”

장끼 답왈,

“나도 생각이 있으나 옛글에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 했고,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 했고, 내 가난하여 빌리러 갔기로 저를 대접하여 서동지라 존칭하였더니 대희하여 후대하고 종일 문답하며 여차여차하였노라.”

하거늘 딱부리 하는 말이,

“자네 일정 간사하도다. 만일 입신양명하면 충신을 험담하여 귀양 보내고 조정을 농권하며 임금을 어렵게 하리로다. 나는 그놈을 찾아가서 서대주라 하고 도적질한 말을 하면 그놈이 겁내어 만석이라도 추심(推尋)*하리라.”

장끼 답왈,

“자네 재주를 몰랐더니 오늘에야 알리로다.”

딱부리 웃으며 나와 협사촌을 찾아가, 구멍 앞에 나가서 생각은 많으나 이를 갈고 “서대주, 서대주.” 찾으니 이윽하여 시비 쥐 나오며 하는 말이,

“뉘 집을 찾아오시니까?”

딱부리 하는 말이,

“네 명색이 무엇이냐? 이 집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도적질하는 서대주 집이냐? 나는 동지촌 사는 딱장군이니 와 계시다 일러라.”

하거늘 쥐란 놈이 꼴을 내어 대답하고 들어가 고하니, 서대주 크게 성내고 분부하는 말이,

“어떤 놈이든지 잡아들이라.”

하니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이 명을 듣고 딱부리를 에워싸고 결박하고 이 뺨 치고 저 뺨 치며 몰아가니 딱부리 애걸하며 비는 말이,

“내 무슨 잘못이 있다 이리하시오? 내 손주 노릇할 터이니 놓아주고 달아났다 하시오.”

한테 듣지 않고 잡아들여 서대주 앞에다 꿰리니 서대주 호령하되,

“이놈! 너는 어인 놈이기에 주인 찾을 때 근본을 해하여 찾으니 그중에 너 같은 놈은 만단을 내리라.”

하며 매우 치라 하니 딱부리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며 빌더라.

-작자 미상, 「장끼전」-

* 현양 :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함.

* 우마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갈분식이라 : 소와 말도 풀을 나눠 먹고, 산돼지도 칩을 나눠 먹는다.

* 추심 :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다.
- ③ 속담과 옛글을 삽입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2. '장끼'와 '딱부리'가 '서대주'를 각각 방문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와 딱부리는 서대주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었다.
- ②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와 딱부리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서대주를 대할 방식을 계획했다.
- ③ 서대주를 방문하여, 장끼는 시종 일관된 태도를 보였고 딱부리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
- ④ 서대주의 거처를 확인하면서, 장끼는 서대주의 환심을 살 만하게, 딱부리는 서대주의 반감을 살 만하게 표현했다.
- ⑤ 서대주를 방문하는 목적을, 장끼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에 두었고 딱부리는 도적질을 벌로 다스리고 교화하는 데 두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장끼전」은 '까투리'를 중심으로 남존여비와 여성의 개가 금지 같은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를, '장끼'를 중심으로는 몰락 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화했다.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의 출현과 향촌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신흥 부호의 위세로 인해 빚어지는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 그리고 신흥 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불화를 그려 내고 있다.

- ① 장끼가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는 처자식을 위해 부유한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을 빌리는 장면에서,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몰락 양반의 면모를 알 수 있군.
- ② 서대주가 '시비 쥐'를 부리고 복색을 갖추어 손님을 '외현'에서 맞이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알 수 있군.
- ③ 서대주를 대접하여 양식을 빌린 장끼에게 '딱부리가 '간사하도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에 대한 처신을 놓고 몰락 양반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서대주의 '시비 쥐'가 딱부리에게 꼴을 내는 장면에서, 몰락 양반의 경제적 곤궁함을 엿신여기는 신흥 부호의 모습을 알 수 있군.
- ⑤ 서대주가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에게 명령하여 딱부리를 결박하는 장면에서, 향촌 사회에서의 신흥 부호의 위세를 알 수 있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장끼전」은 ‘까투리’를 중심으로 남존여비와 여성의 개가 금지 같은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를, ‘장끼’를 중심으로는 몰락 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화했다.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의 출현과 향촌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흥 부호의 위세로 인해 빚어지는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 그리고 신흥 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불화를 그려 내고 있다.

✓ 읽기 전 활동

위 작품은 ‘까투리’를 중심으로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를, ‘장끼’를 중심으로는 몰락 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볼 내용은 생계가 어려운 몰락 양반과 신흥 부호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 신흥 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불화를 그려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의 등장과 이들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지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읽어야 합니다.

‘콩알 하나 없으니 주린 처자를 어이할꼬? 어쨌든 협사촌의 서대주가 도적들과 아래위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적하여 부유하다 하니 찾아가 얻어 보리라.’

하고 협사촌을 찾아간다. 허위허위 이 산 저 산 어정어정 걸어가며 생각하되,

‘이놈이 본디 큰 쥐로 도적질하는 놈이니 무엇이랴 부를꼬? 쥐라 해도 좋지 않고, 서대주라 해도 좋지 않으니, 이놈 부르기 어렵구나. 어쨌든 대접함이 으뜸이라.’

길을 재촉해 협사촌을 찾아 서대주 집 문 앞에서 장끼 큰기침 두 번 하고,

“서동지 계시오?”

하며 찾으니, 이윽고 시비 쥐 나오거늘 장끼 문왈,

“이 댁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댁이오?”

물으니 시비 답왈,

“어찌 찾으시오?”

장끼 가로되,

“잠깐 뵈오리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지금 등장한 인물은 현재 매우 굶주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적을 해서 부유한 ‘서대주’를 찾아가서 무엇이랴도 얻어 보려고 합니다. ‘서대주’에게 간 이 인물은 무엇이랴 부를지 고민하다가 어쨌든 대접하면 된다고 여겨 서동지라고 높여 부르게 됩니다. 굶주린 상태라서 무엇을 얻으려면 상대에게 잘 보여야 하기에 이렇게 높여 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이때 서대주 자녀의 재미 보며 아내와 함께 있더니, 시비 와서 왈,

“문전에 어떤 객이 왔으되 위풍이 현앙(軒昂)*하고 빛갓 쓰고 옥관자 붙이고 여차여차 동지 님을 뵈러 왔다 하나이다.”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대희하여 외현으로 청하고, 정주(頂珠) 탕건 모자 쓰고 평복으로 나아가 장끼를 맞아 예하고 자리를 정하니, 장끼 하는 말이,

“댁이 서동지라 하시오? 나는 양지촌 사는 화충이라고도 하고, 세상에서 부르기를 장끼라고도 혹 꿩이라고도 하는데, 귀댁을 찾아 금일 만나니 구면처럼 반갑소이다. 한 번도 뵈적 없으나 평안하시었소?”

서대주 맹랑하다, 탕건을 어루만지며 답왈,

“존객의 이름은 높이 들었더니 나를 먼저 찾아 누지에 와 주시니 황공 감사하오이다.”

장끼 답왈,

“서로 찾기에 선후가 있는 것 아니니 아무커나 반갑다 못하여 진저리 나노라.”

하거늘 서대주 웃으며 온갖 음식으로 대접하고 고금사를 문답하며 장끼를 조롱하며 베풀더니, 장끼 콧소리를 내며 말하기를,

“서동지께 청할 말이 있노라. 내 본시 넉넉지 못해 오늘까지 먹지 못하다가 처음 청하온데 양미 이천 석만 빌려주시면 내년 가을에 갚으리니 동지 님 생각에 어떠시오?”

서대주 웃으며 하는 말이,

“속담에 ‘우마(牛馬)도 초분식(草分食)하고, 산저(山猪)도 갈분식(葛分食)이라*.’ 하였거든 우리 사이에 무엇이 어려우리오?”

* 현앙 :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함.

* 우마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갈분식이라 : 소와 말도 풀을 나눠 먹고, 산돼지도 칩을 나눠 먹는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서대주’는 아내와 있다가 서동지라고 부른다는 말을 듣고 ‘장끼’를 맞아 예를 갖추어 대접합니다. 위에서 나온 인물은 ‘장끼’였습니다. 우리는 〈보기〉에서 ‘장끼’는 몰락 양반임을 보았습니다. 몰락 양반이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장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서대주’는 신흥 부호일 것입니다. 지금 작중 상황은 몰락 양반이 신흥 부호에게 구걸하러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장끼’는 ‘서대주’에게 예를 갖추며 자신을 소개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구면인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서대주’는 먼저 찾아와 주어 황공하다고 하며 ‘장끼’를 온갖 음식으로 대접하고 베풀게 됩니다. ‘장끼’는 몰락한 양반이어도 양반입니다. 아직은 조선 후기이기에 신분 제도가 완전히 붕괴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양반인 ‘장끼’가 신흥 부호인 자신에게 예를 갖추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끼’는 자신이 넉

덕하지 못해 양미 이천 석만 빌려 달라고 하고, ‘서대주’는 흔쾌히 빌려주게 됩니다. ‘장끼’는 ‘서대주’에게 말로써 대접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된 모습입니다.

(중략)

장끼 감사함을 칭사하고 양지촌으로 돌아가니라. 이때 서대주 노비 쥐를 명하여 창고를 열고 이천 석 콩을 배로 옮겨 양지촌으로 보내니라.

각설. 이때 동지촌에 딱부리란 새가 있으되 주먹뵈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현양한 짐승이라. 양지촌 장끼를 찾아가 오래 못 본 인사 하고 하는 말이,

“자네는 어찌하여 양식이 저리 풍족하여 쌓아 두었는가?”

장끼가 협사촌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 빌린 사연을 자세히 말하니, 딱부리 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 마음이 녹녹지 아니하거든 미천한 도적놈을 무엇이라 찾았는가?”

장끼 답왈,

“나도 생각이 있으나 옛글에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 했고,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 했고, 내 가난하여 빌리러 갔기로 저를 대접하여 서동지라 존칭하였더니 대희하여 후대하고 종일 문답하며 여차여차하였노라.”

하거늘 딱부리 하는 말이,

“자네 일정 간사하도다. 만일 입신양명하면 충신을 험담하여 귀양 보내고 조정을 농권하며 임금을 어둡게 하리로다. 나는 그놈을 찾아가서 서대주라 하고 도적질한 말을 하면 그놈이 겁내어 만석이라도 추심(推尋)*하리로다.”

장끼 답왈,

“자네 재주를 몰랐더니 오늘에야 알리로다.”

* 추심 :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장끼’는 ‘서대주’에게 쌀을 빌려 양지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딱부리’는 어찌하여 양식을 쌓아 두게 되었냐고 묻고, ‘장끼’는 사연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장끼’는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며 ‘서대주’를 서동지라 존칭하였더니 쌀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딱부리’는 이 말을 듣고 ‘장끼’에게 감사하다면서 자신은 ‘서대주’를 찾아가 도적질한 것을 추심하겠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보기>에서 본 신흥 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불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끼’는 신흥 부호를 대접해 쌀을 받게 되었지만, ‘딱부리’는 이러한 ‘장끼’의 행동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딱부리 웃으며 나와 협사촌을 찾아가, 구멍 앞에 나가서 생각은 많으나 이를 갈고 “서대주, 서대주.” 찾으니 이윽하여 시비 쥐 나오며 하는 말이,

“뉘 집을 찾아오시니까?”

딱부리 하는 말이,

“네 명색이 무엇이나? 이 집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도적질하는 서대주 집이냐? 나는 동지촌 사는 딱장군이니 와 계시다 일러라.”

하거늘 쥐란 놈이 골을 내어 대답하고 들어가 고하니, 서대주 크게 성내고 분부하는 말이,

“어떤 놈이든지 잡아들이라.”

하니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이 명을 듣고 딱부리를 에워싸고 결박하고 이 뺨 치고 저 뺨 치며 몰아가니 딱부리 애걸하며 비는 말이,

“내 무슨 잘못이 있다 이리하시오? 내 손주 노릇할 터이니 놓아주고 달아났다 하시오.”

한데 듣지 않고 잡아들여 서대주 앞에다 꿰리니 서대주 호령하되,

“이놈! 너는 어인 놈이기에 주인 찾을 때 근본을 해하여 찾으니 그중에 너 같은 놈은 만단을 내리라.”

하며 매우 치라 하니 딱부리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며 빌더라.

- 작자 미상, 「장끼전」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그렇게 ‘딱부리’는 패기있게 ‘서대주’를 찾아가 이름을 막 부릅니다. ‘서대주’ 집 시비에게 여기가 도적질하는 ‘서대주’의 집이냐며 자신을 딱장군이라 칭하며 나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서대주’는 크게 화가 나 잡아들이라고 하고 결국 ‘딱부리’는 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딱부리’는 애걸하며 ‘서대주’에게 빌지만, ‘서대주’는 화가 나 ‘딱부리’를 매우 치라고 하게 됩니다. 이는 <보기>에서 본 몰락 양반과 신흥 부호 간의 갈등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부리’는 ‘장끼’와는 반대로 ‘서대주’를 하대했고, 결국 매를 얻어 맞게 됩니다.

#작품 총평

‘장끼’와 ‘딱부리’가 신흥 부호인 ‘서대주’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 결과 또한 달랐음을 잘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내용 자체가 쉽고 <보기>에서도 많은 정보를 주었기에 이런 작품은 빠르게 읽어내야 합니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①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중략 이후에 ‘딱부리’의 외양을 ‘주먹뵈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현양한 짐승이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딱부리’가 화려하고 위풍이 현양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다.

→ ‘서대주 맹랑하다, 탕건을 어루만지며 답왈’에서 서술자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물에 대한 호감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맹랑하다는 것은 어이없다는

뜻으로 장끼가 예를 갖추어 서대주를 대접하자 서대주 또한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보고 서술자는 어이없어 하는 것입니다.

③ 속담과 옛글을 삽입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 ‘우마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갈분식이라’라는 속담이 등장하지만 이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서대주가 장끼에게 양미를 빌려주면서 한 말이지 내적 갈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작품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부분도 없고, 인물들이 초월적 능력을 가진 인물들도 아닙니다. 평범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⑤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공간적 배경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를 자세히 묘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2. ‘장끼’와 ‘딱부리’가 ‘서대주’를 각각 방문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⑤

①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와 딱부리는 서대주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었다.

→ ‘장끼’와 ‘딱부리’는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서대주’가 도적질하는 인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끼’는 양미를 얻기 위해 대접을, ‘딱부리’는 추심하겠다고 ‘서대주’를 하대하게 됩니다.

②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와 딱부리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서대주를 대할 방식을 계획했다.

→ ‘장끼’는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어떠한 대접함이 으뜸이라며 대접할 계획을 했고, ‘딱부리’는 ‘서대주’를 찾아가 도적질한 것을 추심하겠다고 계획합니다.

③ 서대주를 방문하여, 장끼는 시중 일관된 태도를 보였고 딱부리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

→ ‘장끼’는 ‘서대주’를 방문해 처음부터 끝까지 ‘서대주’에게 예를 갖추어 대접합니다. 그 결과 양미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딱부리’는 처음에는 패기있게 ‘서대주’를 하대하다가 매를 맞게 되자 ‘서대주’에게 애원하면서 살려 달라고 합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태도를 바꾼 ‘딱부리’의 모습입니다.

④ 서대주의 거처를 확인하면서, 장끼는 서대주의 환심을 살 만하게, 딱부리는 서대주의 반감을 살 만하게 표현했다.

→ ‘장끼’는 ‘서대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계속해서 예를 갖추어 대접합니다. 하지만 ‘딱부리’는 ‘서대주’를 하대해 서

대주가 크게 화가 나게 되고, 결국 얻어 맞게 됩니다.

⑤ 서대주를 방문하는 목적을, 장끼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에 두었고 딱부리는 도적질을 벌로 다스리고 교화하는 데 두었다.

→ ‘장끼’는 서대주를 방문하는 목적이 배를 굶주려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얻으려 간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부리’는 ‘서대주’가 도적질한 것을 추심하겠다고 합니다. 추심은 찾아가서 가지거나 받아 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딱부리’가 ‘서대주’를 벌로 다스리고 교화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도적질한 것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에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④

<보 기>

「장끼전」은 ‘까투리’를 중심으로 남존여비와 여성의 개가 금지 같은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를, ‘장끼’를 중심으로는 몰락 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화했다.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의 출현과 향촌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신흥 부호의 위세로 인해 빚어지는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 그리고 신흥 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불화를 그려 내고 있다.

① 장끼가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는 처자식을 위해 부유한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을 빌리는 장면에서,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몰락 양반의 면모를 알 수 있군.

→ 장끼는 양식이 떨어져 부유한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을 빌리게 됩니다. 이는 몰락 양반이지만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도적질하는 신흥 부호인 서대주를 찾아가는 몰락 양반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서대주가 ‘시비 쥐’를 부리고 복색을 갖추어 손님을 ‘외현’에서 맞이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알 수 있군.

→ 장끼가 서대주를 찾아가자 처음에 ‘시비 쥐’가 장끼의 말을 듣고 서대주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대주가 복색을 갖추어 손님을 ‘외현’하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흥 부호의 부유한 생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서대주를 대접하여 양식을 빌린 장끼에게 딱부리가 ‘간사하도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에 대한 처신을 놓고 몰락 양반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딱부리는 장끼가 서대주에게 예를 갖추어 양식을 빌린 것을 듣고 장끼에게 ‘간사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흥 부호에 대한 처신을 놓고 몰락 양반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서대주의 '시비 쥐'가 딱부리에게 골을 내는 장면에서, 몰락 양반의 경제적 곤궁함을 엿신여기는 신흥 부호의 모습을 알 수 있군.

→ 서대주의 '시비 쥐'는 딱부리가 자신을 딱장군이라 칭하며 서대주를 하대하는 것을 듣고 골을 내어 대답하고 들어갑니다. 이는 딱부리의 거만한 태도에 골을 내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양반의 경제적 곤궁함을 엿신여기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반의 경제적 곤궁함을 엿신여겼다면 장끼도 엿신여겼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⑤ 서대주가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에게 명령하여 딱부리를 결박하는 장면에서, 향촌 사회에서의 신흥 부호의 위세를 알 수 있군.

→ 서대주는 딱부리를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을 명령해 결박하게 됩니다. 이는 신흥 부호가 많은 부하들을 거느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